opusdei.org

오푸스데이 설립자의 저서

https://escriva.org/ko/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트는 오푸스데이의 설립자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서적을 포함했고, 사용자가 찾는 구절로 빠른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검색 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3-10

출판된 저서를 모두 https://escriva.org/ko/에서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푸스데이 설립자의 저서. 여기를 눌러 릳크를 확인하세요

길

길의 힘과 매력은 실제로 살아있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1925년에 시작된, 사제로서 저술한 저자의 결과입니다. 이 책은 1934년에 영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출판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사랑을 받게 되자 지금의 제목인 '길'로 제목을 바꿔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길'은 43개 언어로 4,500,000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책의 주된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대화 형식이며,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문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1950년 3월 24일 오쎄르바또레 로마노의 검토 위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몬시뇰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는 걸작 이상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책을 쓰셨고, 길을 구성하는 짧은 문장들은 곧장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밭고랑

길처럼, 밭고랑은 성 호세마리아의 내적 생활과 영혼 경험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덕에 대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제시한다.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는 "밭고랑이 그리스도인의 전체, 육체와 영혼,

자연과 은총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 책의 서문에서 써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죽기 전에 이 책의 최종 수정을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드디어 못 했습니다. 초판은 198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50만부 이상이 여러 언어로 인쇄되었습니다.

(저자의 서시에서): "나의 독자와 친구여, 나로 하여금 당신들의 영혼을 도와 인간의 덕향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게 하여 주오, 은총은 본성에 작용하니까요. 그러나 잊지 마시오, 나의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들에게는 비록 매우 인간적으로 보이겠지만, 시제에 어울리기도 해야 하오, 하느님 앞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지만- 내가 그것들을 썼기 때문이오. 나는 우리 주님께 청하거니와 이 페이지들이 우리들에게 쓸모있게 되어지이

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해지겨 그것들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들의 생활에서 우리들의 행위들이 길고 비옥한 밭고랑을 남길지어다.”

하느님의 친구들

1977년에 처음 출판된 이 책은 성 호세마리아의 사후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책은 1941-68년 사이에 주어진 18 권의 강론들을 한 권으로 모아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과 더 깊은 우정을 맺도록 독자에게 이끕니다.

저자의 하느님과의 자녀로서 하는 대화는 인간과 초자연적 덕목들에 대한 그분의 성찰에 근거합니다. 4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13개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강론집에서 우리는 에스크리바 몬시뇰이 살아있는 동안에 출판한 원고들과 그가 나중에 출판하려고 남겨둔 다른 많은 원고들도 모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일을 계속하였다.”

“여기 실린 18개의 강론은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더 가까이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 미덕과 그리스도인 덕목의 기본적인 모습을 폭넓게 보여준다... 에스크리바 몬시뇰의 말들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 곧 기도로 바뀐다. 그의 말들은 강론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희망에 완전히 부응하는 진심 어린 대화가 된다. 그러므로 이 강론들은 교리 안에 담긴 교훈이며, 또한 하느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교훈이다. 아마도 그의 위대한 소통 능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피곤도 느끼지

않고 쉴 필요도 없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성덕을 향하여, 296)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단순함과 더불어, 열정적이고 광범위한 사랑의 이중주가 이 모든 저술에서 끊임없이 펼쳐진다... 에스크리바 몬시뇰이 우리를 초대하는 성덕의 길은 자유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푸스데이 설립자는 위대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좋아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자유로이 당신을 섬기는 편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거룩한 묵주기도 (1934 년에 처음 출판 된)에는 묵주기도의 15 가지 신

비에 관한 일련의 짧은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회,고통,영광의 신비). 이 책은 우리 주님과 성모님의 생애에서 독자들이 장면에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호칭기도에 대한 간단한 해설도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1931년 어느 날에 미사 뒤이어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습니다. 이 책은 삼위일체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모님과의 신뢰하는 대화의 길을 따라 독자를 이끌어줍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바치는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짐을 발견하게 될 그 길의 시작은 마리아께 바치는 신뢰에 찬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묵주기도는 현재 25개 이상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7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성 호세마리아의 죽음 이후에 발간 된었습니다. 이 책에는 14개의 십자처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들어 있는데, 이는 오푸스데이 설립자의 개인기도 생활의 결실입니다.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슬픈 봉헌이 아닙니다. 에스크리바 몬시뇰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십자가의 형상 안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수난이 고통의 길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 주는 희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의이 사후의 이 작품은 이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들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책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주님께 대한 보상, 사랑, 슬픔과 감사의 정신을 키우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제 1판은 1981년에 나왔습니다. 19개 언어로 4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몬시뇰 에스크리바와 대화 - 이 세상을 열정으로 사랑하며

이 책은 기자들과 7번의 대화를 (1966-68년 사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르 피가로, 뉴욕 타임즈, 타임 마가지느, 로세르바토레 델라 도메니

카 및 3개의 스페인 출판물 (텔바, 대학 신문과 팔라브라)입니다.

오푸스데이 설립자는 교회와 방금 결론 지었던 제2 바티칸 공의회, 오푸스데이, 인간 자유, 대학과 오늘날 사회의 여성들 등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이 세상을 열정으로 사랑하며라는 강론으로 마치합니다. 이것은 1967년 10월 8일 나바라 대학교 캠퍼스에서 스페인과 다른 나라에서 온 40,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한 강론의 기록 전문입니다. 이 강론의 깊은 영적 메시지는 독자가 오푸스데이 설립자에 의해 다양한 기자들에게 주어진 답변을 불러 일으키는 정신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에스크리바 몬시뇰과의 대화는 1968년에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어, 독어, 카탈로니아 어, 네델란드어, 폴란드어, 중국어로 나왔습니다. 35만 이상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 번역이 아직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열정으로 사랑하며 라는 강론이 한국어로 따로 출판되었습니다.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opuseudei-seolribjayi-jeoseo/ (2025-12-15)